

시
멘
트
產
業
의
長
期
展
望

우리나라 産業構造를 中心으로

中央日報 論說委員

李

圭

東

1人當 GNP를 3백54「달러」로 이끌어 올린다는 第3次 5個年計劃의 指標가 최근 발표되었다.

76년에 우리의 産業構造는 第1次産業이 21.6% 水準으로 떨어질 것이며 第2次産業이 40%水準으로 提高될 것이라 한다. 1人當 GNP가 76년에 3백 54「달러」水準에 이른다면 우리도 後進國의 딱지를 떼고 中進國의 下層에 접어들 것이라는 希望이 第3次計劃에서는 뚜렷이 提示되고 있다.

第3次計劃의 性格이나 問題點을 論外로 한다면 지난 10年間의 韓國經濟는 成長力을 높이고 있다는데 異論의 餘地는 없다 할것이다. 成長의 「엔진」이 걸린 이상 成長은 運轉如何에 따라서 持續性을 갖게 될 것도 分明한 것이며 産業構造가 그에 따라서 高度化될 것도 分明하다 할것이다.

第3次計劃이 農工에 均衡있는 發展을 強調했기 때문에 第1次産業의 構成비가 76년에 21.6%로 現在보다 微微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76년에 실지로 보는 産業構造는 第3次計劃이 提示한 것보다 훨씬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이다. 즉 지금의 高度成長政策이 계속되며 그 內外與件에 特別한 異變이 없는限 農工間의 隔差는 더욱 擴大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76年の 産業構造는 第1次産業의 構成比를 20%未滿으로 떨어트릴 것이며 어쩌면 15% 以下로 떨어트릴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産業構造가 高度화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工業化와 都市化의 激化를 뜻하는 것이라 할것이다. 都市化 工業化의 激化는 많은 社會資本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電力, 交通, 遞信, 敎育, 住宅, 上下水道等 일련의 社會資本需要는 工業化 都市化의 數量的 增大率을 훨씬 超過하는 累積的인 增加를 誘發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工業化, 都市化로 所得源泉이 工業地區 都市地區에 더욱 集中되는 過程에서 自然히 社會資本需要는 더욱 擴大되고 그것이 다시 都市化 工業化를 促進시키는 反作用을 하기때문에 相乘作用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累積的의 需要는 결국 建設需要를 뜻하는 것이며 建設需要의 累積的 增加는 곧 「시멘트」 鐵鋼材의 累積的 需要增大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高度成長은 「시멘트」産業의 高度成長과 表裏關係에 있다 할것이며 高度成長政策이 存續하

는限「시멘트」産業은 量的 擴大를 거듭할 것이다
 「시멘트」産業이 韓國에 登場한 것도 실질적으
 로 10年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56年の「시멘트
 國內消費實績이 불과 6萬屯水準에 있던 것이
 68년에는 3백 4십萬屯水準으로 50倍나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69년에는 6백萬屯水準으로 擴大될
 趨勢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驚異의인 成長을
 하는「시멘트」業界는 輸出을 考慮하지 않는다 하
 드라도 當分間 擴大되는 國內需要를 따라가는데
 級級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할것이다.

그러나 불과 10餘年에 1백倍에 가까운 成長率
 을 보인 「시멘트」産業이 앞으로도 同一速度로
 擴大된다고 假定하거나 豫想할 수는 없다는 點
 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시멘트」業界가 記錄한 그동안의 成長은 실질
 적으로 無에서 出發했기 때문이라 할것이며 이
 제 어느정도 基本需要를 充足시켰기 때문에 앞
 으로의 「시멘트」成長率은 投資率 經濟成長率과
 原則적으로 比例關係를 維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것이다.

물론 韓國經濟의 工業化, 都市化 過程이 平均
 成長率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멘트」
 業界의 成長率이 平均成長率을 上廻할 公算은
 짙은 것이다. 「시멘트」需要를 反映하는 都市開
 發로서의 高層化가 계속될 것이며 都市住宅建設
 이 加速될 것이고 交通網이 계속 擴大되어야 하
 며 그에 따라서 上下水道施設이 擴張되어야 하
 고 教育衛生시설이 擴大되어야 한다.

또 工業化에 따라서 加速적으로 擴大되는 都市
 間交通量擴大 工業團地와 消費地間의 交通量 擴大
 등 때문에 「시멘트」需要는 계속 擴大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投資率은 大體로 限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需要가 많드라도 그것이
 具體化되려면 投資率이 계속 높아야 하는 것이다

資本制經濟에서 投資率은 貯蓄率과 表裏關係
 에 있으나 貯蓄率을 投資者가 決定하지 않는다
 는데 貯蓄率의 限界性이 있다는 것이다. 즉 投資
 財源만 擴大될 수 있다면 投資者인 企業이나
 政府는 需要가 있는限 投資를 擴大시켜 갈 것이
 다. 그러나 投資財源은 貯蓄者가 마련하는 것으
 로 貯蓄者와 投資者는 同一範疇에 있지 않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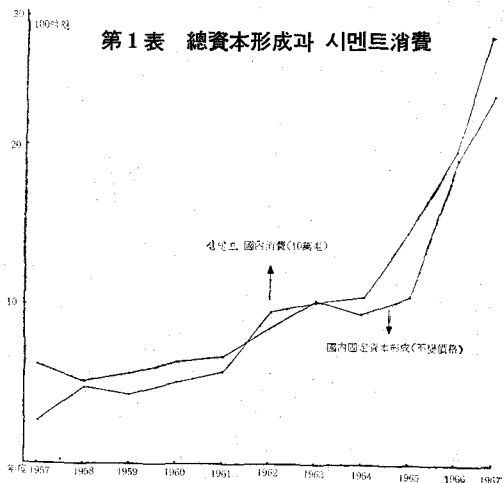
것이다. 貯蓄의 大部分은 一般消費者가 찾아하
 는 것이며 政府는 租稅의 一部 그리고 企業은 留
 保利潤과 減價償却基金밖에 貯蓄하지 못하는 것
 이다. 이와같이 投資財源의 形成 大資本制經濟에
 서 대체로 消費者가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貯蓄
 率은 社會的인 投資需要와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

대체로 資本制經濟에서는 貯蓄率의 經驗値가
 一般的으로 形成되어 있다. 이른바 後進國에서
 는 貯蓄率이 5%~7% 水準에 있고 先進國은 15
 %~20%線에 있으며 特殊한 國家에서는 그것이
 30%水準까지 높은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60年代 初期까지는
 貯蓄率이 零에서 10.15%線에 있었으며 실질적
 으로 貯蓄이 形成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減
 價償却分까지 合해도 當時의 貯蓄率은 5% 水準
 을 上廻하는 경우가 稀少했던 것이다.

그러나 60年이후에 經濟計劃이 執行되고 物價
 安定을 期하면서 貯蓄率은 차츰 上昇하기 시작
 하였으며 68年の 경우 13% 水準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이러한 國內貯蓄率의 上昇과 外資導入
 의 好調로 68年の 資本形成率은 27%水準까지
 提高되기에 이른 것이다.

第1表에서 보면 우리의 資本形成은 64年을
 고비로 하여 그 樣相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64년까지의 資本形成은 絕對金額
 上으로 1천억원水準(65年不變價格基準)을 下廻
 하고 있었던 것이다. 65년부터는 그 絕對額이
 飛躍적으로 增加하여 67년에는 65年の 2倍以上
 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資本形成의 劃期的인 增加는 곧 「시멘트」消費의 劃期的인 增加로 反映되는 것이며 第1表는 「시멘트」消費實績과 資本形成이 같은 速度로 增加하고 있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消費實績과 資本形成은 正相關關係가 큰 것이 分明하며(勿論 統計的 方法으로 相關値를 算出하면 더 嚴密한 係數를 얻을 수 있겠으나 表1은 計算을 必要로 하지 않을 程度로 相關도가 높은 것인 豫測基準이 提示될 것이다.)

政府가 發表한 第3次 5개년計劃에 依存하여 본다면 資本形成率은 76년까지 GNP의 27.8%로 固定된다는 것을 政府는 豫定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計劃을 基準으로 한다면 「시멘트」産業의 成長率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資本形成率 27.8%가 70년아후에 安定된 水準을 維持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GNP 成長率이 10%水準에서 安定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要因을 考慮하지 않는다면 「시멘트」産業은 이제부터 10%水準의 成長率을 前提로 하는 段階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狀態는 이른바 「J. 로빈슨」의 黃金時代 「모델」과 一致하는 것이다.(즉 資本形成의 絕對金額도 10%씩 增加하고 GNP 成長率도 10%씩 增加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때이므로 이를 省略해도 좋을 것 같다) 때문에 「시멘트」産業의 長期豫測은 資本形成의 長期豫測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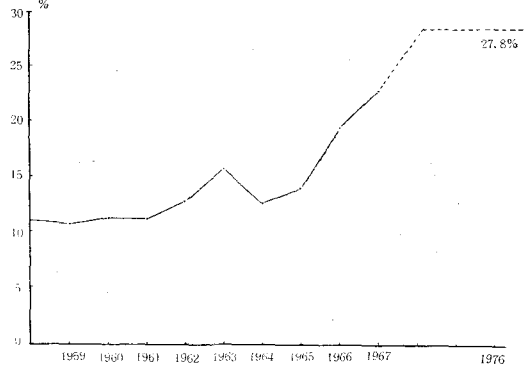
앞으로 資本形成率이 提高될 수 있는 條件이 充足되면 「시멘트」産業은 더욱 加速的으로 成長할 것이며 反對로 資本形成率이 一定水準에 머물러 있다면 「시멘트」産業의 成長率은 經濟成長率과 比例關係를 가질 것이라는 第1次的豫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資本形成增加率=GNP成長率=「시멘트」生産增加率의 等式關係가 成立된다.

이러한 第1次的 豫測에 修正要因으로 作用하는 要素를 考慮해야 한다.

첫째는 資本形成의 構成變動에도 資本形成의 構造를 「시멘트」産業과 關聯시키는 경우 資本財形態가 重要性을 가진다. 즉 資本形成의 構造가 構造物比重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設備比重을 높이는냐에 따라서 「시멘트」需要가 달라진다. 이

第2表 資本形成率의 趨移(%)



러한 構成比는 年度에 따라서 起伏은 있으나 第1次 5個年計劃 期間中 대체로 構造物比重이 높아지고 있는것만은 分明하다. 資本形成중 「시멘트」需要가 直接 關聯이 적은 設備(機械) 投資比率는 62年 41.6%, 63年 31.5%, 64年 27.5%, 65年 32.1%, 66年 42.6%로 되어 있어 62年을 除外하면 構造物比重이 傾向的으로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構造物比重의 增加는 비록 資本形成率이 一定하다 하더라도 「시멘트」需要는 GNP 成長率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點에서 第3次 5個年計劃의 投資 構造를 分析할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發表된 輪廓에는 그러한 具體的인 內容이 없다. 다만 第3次計劃의 主要政策指標로 미루어 보아 構造物比重이 늘어날 公算은 짚다할 것이다. 즉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農業成長에 力點을 준다는 方向이 提示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 政策에 充實하다면 資本形成중 構造物 比重은 增加될 傾向性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資本形成率이 27.8%에서 安定되는限 시멘트産業의 成長率은 原則的으로 10%成長率을 許容받았다 할 것이며 構造物 比重增加에 起因한 「푸러스·알파」가 追加된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角度를 달리하여 1人當 「시멘트」消費 實績의 國際比較를 보면 韓國의 「시멘트」産業이 어느 水準에 到達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國際的으로 「시멘트」消費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로서 1人當 6백 90kg을 消費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며 「벨지움」 「오스트리아」가 다 같이 6백kg水準에 있다. 이른바先進國의 代表格이라 할 西獨, 「프랑스」, 「伊太利」, 「美國」 등은 3백~5백kg水準이고 大部分의 中進國은 2백kg~3백kg水準에 있다.

이런 國際比較에 비추어 본다면 韓國의 1人當消費實績은 70년에 2백kg水準에 이를 것으로 豫測되고 있으므로 決코 적은水準이 아니라 할것이다. 더우기 1人當 GNP水準에 比한다면 1人當 2백kg水準을 消費하게 될 韓國의 消費실적은 大減한 것이라 할것이다.

또 中進國以上의 國家에서는 1人當 「시멘트」消費增加率이 年間 10%水準以下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것 같다.

資本形成率의 趨勢로 보나 1人當 「시멘트」消費比較로 보나 韓國의 「시멘트」産業은 이제 하나의 轉換期를 맞이해야 할 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判斷이 可能할것 같다.

즉 지금까지의 飛躍的 成長, 異例의 成長時代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正常成長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感이 짙다는 것이고 즉 一定率의 成長率을 維持하는 正常性이 「시멘트」産業의 與件으로서 提起된다는 것이다. GNP 成長率에 「푸러스·알파」의 成長率을 前提로 하는 着實하나 過去보다는 어느정도 지루한 成長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飛躍的 成長에서 正常成長으로서 轉換은 「시멘트」業界의 體質에도 적지 않은 餘波를 미칠 것으로 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正常成長단계의 特徵은 成長豫測에 誤發을 犯하면 經營에 커다란 打擊을 줄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過剩生産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는 生産=消費의 關係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供給不足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시멘트」業界는 生産擴張만 하면 되었던 것이지 需要豫測을 等閑히 해도 좋았다. 그러나 正常成長段階에서는 需要豫測이 先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施設擴張을 맞추어야 한다는 反對基準으로 經營해야 할 必要性이 생긴다.

둘째 正常成長단계에서는 競爭關係가 熾烈해질 것임도 分明하다. 供給不足狀態에서는 原價보다는 供給能力에 따라서 利潤量이 決定되므로 競爭關係가 重要性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競爭

關係가 形成되면 供給量보다는 原價率이 보다 重要性을 갖게되는 것이며 때문에 經營合理化에 앞선 企業이 有利해 질 것이다.

세째 原價問題가 經營의 中心點을 이룬다면 事理의 當然한 歸結로 技術開發이 重要한 課題가 될것이다. 技術的으로 앞서는 企業을 뒤지는 企業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競爭社會의 本質이기 때문이다.

네째 技術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再投資基金을 蓄積하는 能力에 따라서 競爭力이 左右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既存施設에 대한 減價償却을 제대로 하여 蓄積하고 社內 留保利潤을 蓄積하여 施設代替를 技術發展速度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競爭力의 基本尺度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멘트」産業의 客觀的 情勢내지 與件이 「시멘트」産業의 將來에 미칠 效果만을 技術的으로 分析한데 不過하다. 「시멘트」産業의 內部問題나 金融財政面에서의 問題點은 言及한 바 없다.

그러나 적어도 5年以上의 長期豫測의인 것이라면 借款으로 建設된 「시멘트」産業으로서는 換率·物價 그리고 財政金融問題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第3次 5개년 計劃의 主要指標을 前提로 해서 「시멘트」産業의 將來를 豫測한 것이므로 第3次計劃이 內定한 問題點도 當然히 豫測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로서는 그런 問題까지 考慮할 能力을 가지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事項은 考慮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換率은 멀지 않은 將來에 大幅的으로 變動될 公算이 짙으며 그것이 「시멘트」業界의 資金展望에 커다란 問題點을 提起시킬 것이라는 點.

둘째 오늘의 國際收支動向으로 보아 輸入增加率을 이대로 放過할 수는 없을 것이며 때문에 輸入面에 어떤 根本的인 變動이 있을 것이라는 點을 考慮해야 할것이다. 輸入增加率이 年間 40%水準에서 GNP 成長率이 10%라면 輸入抑制가 GNP 成長率에 壓迫을 加할 것이며 그것은 累積的인 投資減退로 反映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우 「시멘트」産業은 景氣後退過程에서 가장 큰 打擊을 받을 分野임을 注目해야 한다는 것이다